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 잔여매립기간 확보”

관련 조례·규칙 개정 추진 폐기물 불법반입 집중점검

여수시는 만흥위생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리기 위해 잔여매립기간 확보에 총력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2030년 이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만흥위생매립장 매립용량을 측정한 결과 매립장 잔여매립기간은 2029년 9월까지 전망된다.

시는 폐기물 반입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추진해 잔여매립기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잔여기간 확보를 위해 타 지역을 비롯해 지역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금지가 불가피함에 따라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여수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

정했다.

매립장 반입 폐기물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해 현재 입법 예고 완료 후 의견 검토 중이다.

폐기물 반입 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10~30일까지 폐기물 반입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업체 및 운반자에 대해 30일에서 최대 3년까지 반입이 금지된다.

관련 조례 및 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 폐기물 불법 반입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립장 직원 13명을 읍면동별 전담제로 지정해 현장 확인 후 반입가능 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지난 8일에는 만흥위생매립장 이용업체 대표 50여명을 대상으로 ‘폐기물 반입 정책 간담회’를 열어 폐기물 반입 관련 조례·규칙 개정 추진 및 불법 반



여수시가 만흥위생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리기 위해 잔여매립기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여수시 제공

입 집중점검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사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비용에 비해 차이가 나는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해 추후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착한가격업소 추가모집·정비 여수시, 14~23일까지

여수시는 오는 23일까지 착한가격업소 17개소를 추가로 모집하며 6월 중 지정업소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규모는 17개소로 대상은 관내 영업 중인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다.

단 △지역 평균가격 초과 △프랜차이즈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최근 1년 이내 휴업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희망 업소는 오는 23일까지 여수시 지역경제과에 방문,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착한가격 메뉴 비중, 가격 수준·안정 노력, 이용만족도, 위생·청결, 공공성 등에 대해 민·관합동 현지실사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과 시 홈페이지 내 홍보, 업소별 수요조사를 통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이 제공된다.

기존 100개소 지정업소에 대해 현지방문을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부적격업소는 지정 취소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보성군 MZ세대 공직자 교육 김철우 군수와 소통

보성군은 지난 9일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산하 8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보성군 특!특! 튀는 MZ세대 공직자 소통 교육’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MZ세대 공직자들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직장 내 소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9일부터 16일까지 기수별 약 40명씩 총 3회로 나눠 진행된다.

이날 교육은 나와 타인의 이해를 위한 조직 적응 교육, 직원 간 신뢰와 자긍심 제고를 위한 공감과 소통의 시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재충전의 트레킹 등 힐링과 조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위주로 추진됐다.

직원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한 김철우 보성군수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MZ세대 직원들과 격의 없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은지 기자



보성군이 지난 9일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산하 8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보성군 특!특! 튀는 MZ세대 공직자 소통 교육’을 개최했다. 보성군 제공

‘드론실증도시 구축’ 추진 고흥군-컨소시엄 구성 기관

고흥군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킷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테크노파크, 대한항공, 피앤유드론, 천풍, 날다, 마린로보틱스 등 고흥군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컨소시엄 전체가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기업(관) 간 협의와 성과 달성에 필요한 일정 점검 등이 이루어졌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드론활용 사업의 가능성을 넓히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실증사업을 지자체별로 발굴해 신청하면 공모절차를 통해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억원을 포함한 총 12억원을 투입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관)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와 AI드론을 활용한 유해조수 퇴치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며, 실증은 도양읍 상·하화도, 남양면 선정마을 등 실증하기에 적합한 지역에서 11월까지 실시된다.

군은 드론실증에 이어 상용화에도 입지를 선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고흥군,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역 활력 찾는다

청년공동체 사업 본격화

고흥군이 청년의 안정정착을 돕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공동체 지원사업’ 대상자로 5개 단체를 선발해 활동비를 지원한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청년공동체 지원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공동체들이 교육, 창업, 문화예술 등 사업에 참여해 지역을 살리고 청년 정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은 역량있는 지역 청년단체 발굴을 위해 지난 4월2일 공개모집을 거친 결과 8개 청년단체가 신청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열어 청년단체별 △사업 참여 역량 △체계성 △효과성 △창의성 △지속성을 중점 심사해 사업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된 5개 청년단체에 600만원의 사업수행비가 지원되며 전문가 자문, 청년공동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형성, 청년정책사업 연계 등 지원을 받게 된다.

김은지 기자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공동체 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 내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흥군은 ‘청년이 살기 좋은 고흥’, ‘청년이 돌아오는 행복고흥’을 만들기 위해 지난 9일 청년발전위원회 및 제3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며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 표고버섯음료 재출시 젊은 소비자 겨냥 제품 개발



장흥군은 대표 특산물인 원목표고버섯을 활용해 만든 ‘표고버섯 음료’가 재출시됐다고 12일 밝혔다.

장흥표고음료는 1999년 최초로 개발되어 연간 60만 캔 이상 판매된 지역 대표 음료다.

표고음료는 지난 2021년 생산 공장의 화재로 판매가 중단됐다.

지난 2월 장흥군은 정남진장흥농협, 다인음료,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과 함께 재생산 협의에 돌입했다.

장흥군과 전문가가 참여한 시음회 행사를 추진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기존 제품을 보완, 이전보다 칼로리를 낮춘 새로운 버전의 표고음료가 출시됐다. 새로운 표고음료는 정남진장흥농협 하나마트, 마트, 특산물 판매장(토요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흥군과 정남진장흥농협은 지난 9일 직원 무료 시음 행사를 진행했다.

MZ세대 ‘하이볼’ 열풍에 힘입어 표고하이볼, 표고 에이드 밀키트를 한정수량 제작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 우수 농특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밀키트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진환 기자

순천시, 음악이 보이는 바다 ‘와온해변으로 놀러와온’ 연다

14일까지 80명 선착순 모집

순천시와 순천 세계유산축전 추진위원회는 순천 갯벌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음악회는 오는 17일 오후 7시에 와온해변 부둣가에서 열리며 참가자는 14일까지 순천시청 카드뉴스 속 QR코드로 선착순 80명을 모집한다.

이번 음악회는 ‘음악이 보이는 바다, 놀러와온’을 주제로 열리며, 지역예술인인 룩스 앙상블과 허윤정 퀸텟의 공연으로 구성했다. 창작곡인 ‘Sunset On The



Waon Beach’를 시작으로 노을, 쉼, 바람 등 주제별로 준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와온해

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세계유산으로 탁월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순천시 문화유산과(061-749-68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오는 8월 한 달간 선암사와 순천만갯벌을 무대로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가지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고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